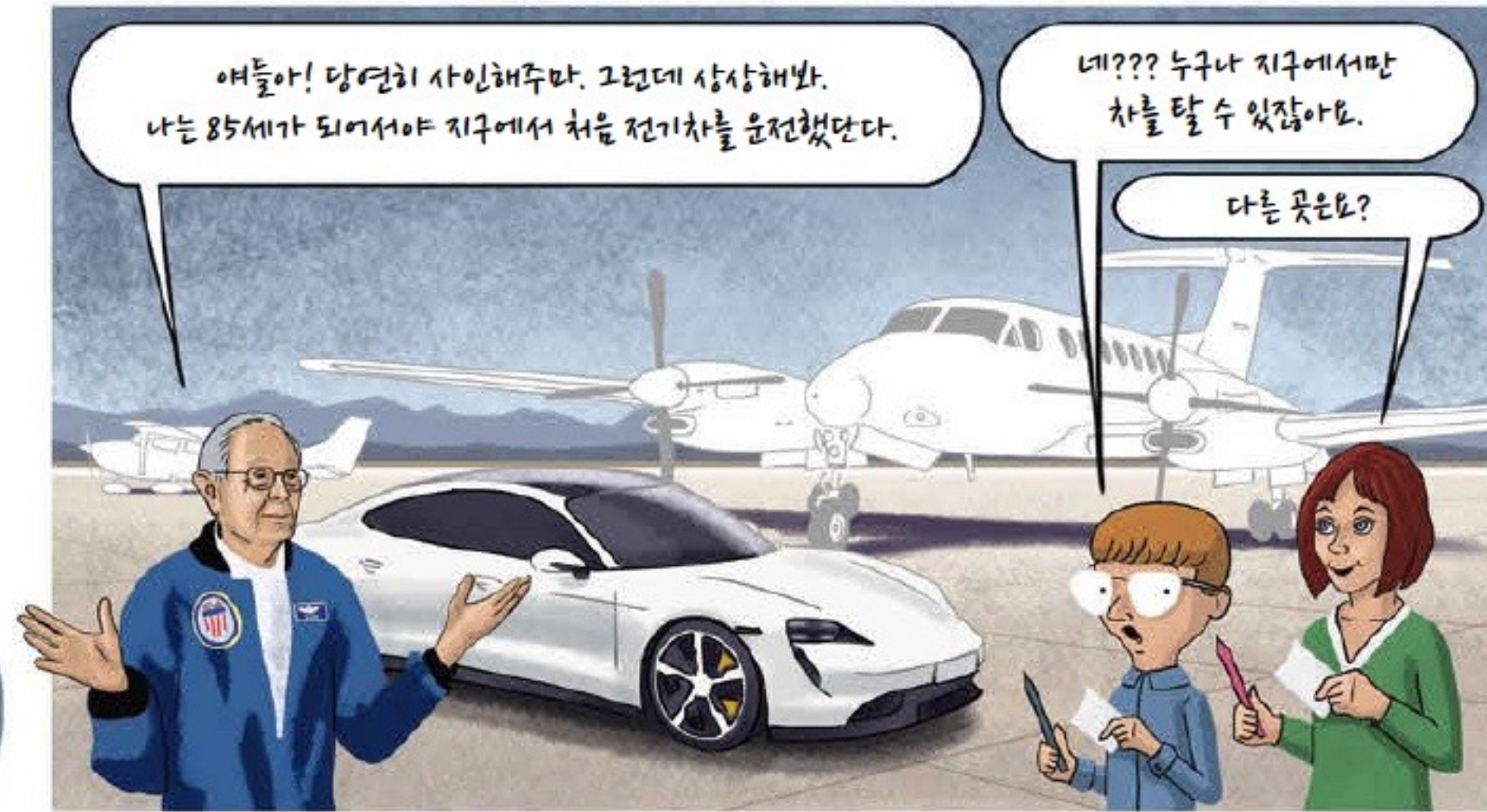


Porsche Tee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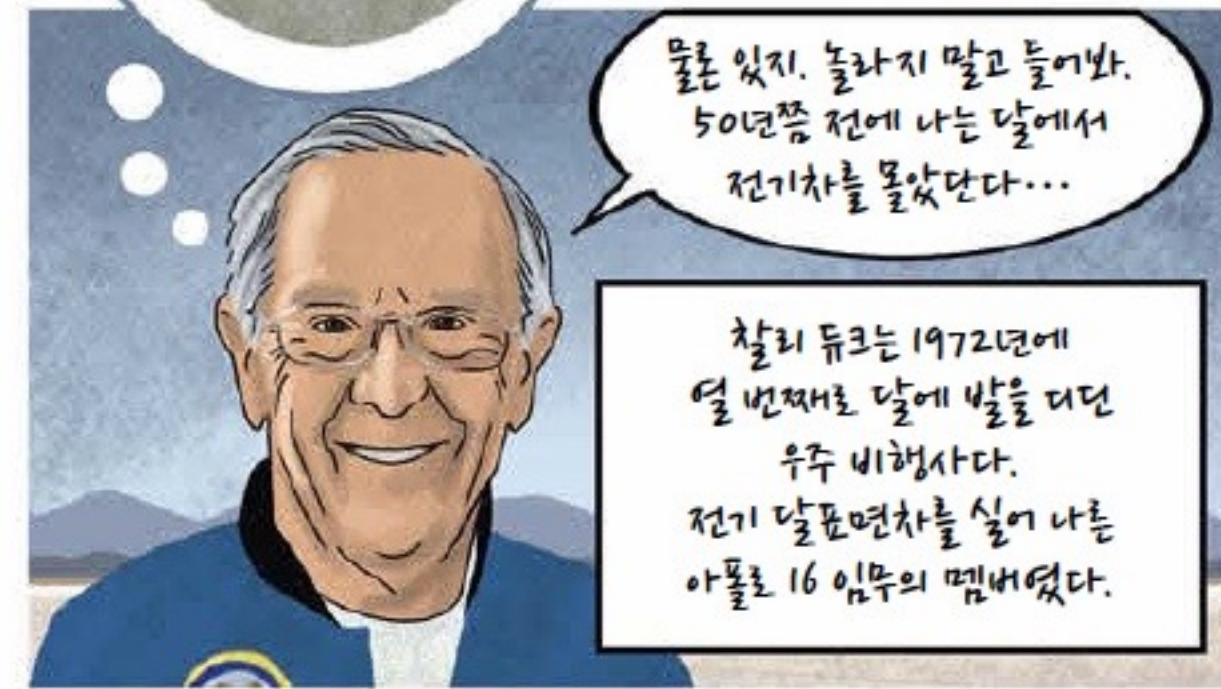
책과 진자가 실제 우주 비행사를 만난다.
그림: 토비아스 팔케



여러분! 당연히 사인해줘야. 그런데 상상해봐. 나는 85세가 되었어야 지구에서 처음 전기차를 운전했었다.

네??? 누구나 지구에서만 차를 탈 수 있잖아요.

다른 곳요?



물론 있지. 놀라지 말고 들어봐. 50년쯤 전에 나는 달에서 전기차를 몰았었다...

찰리 듀크는 1972년에 열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 비행사다. 전기 달표면차를 실어 나른 아폴로 16 임무의 멤버였다.



당시에는 아주 흥미로웠지...

??

??



달까지 가는데 4일 넘게 걸렸었다...

정말 무거웠겠어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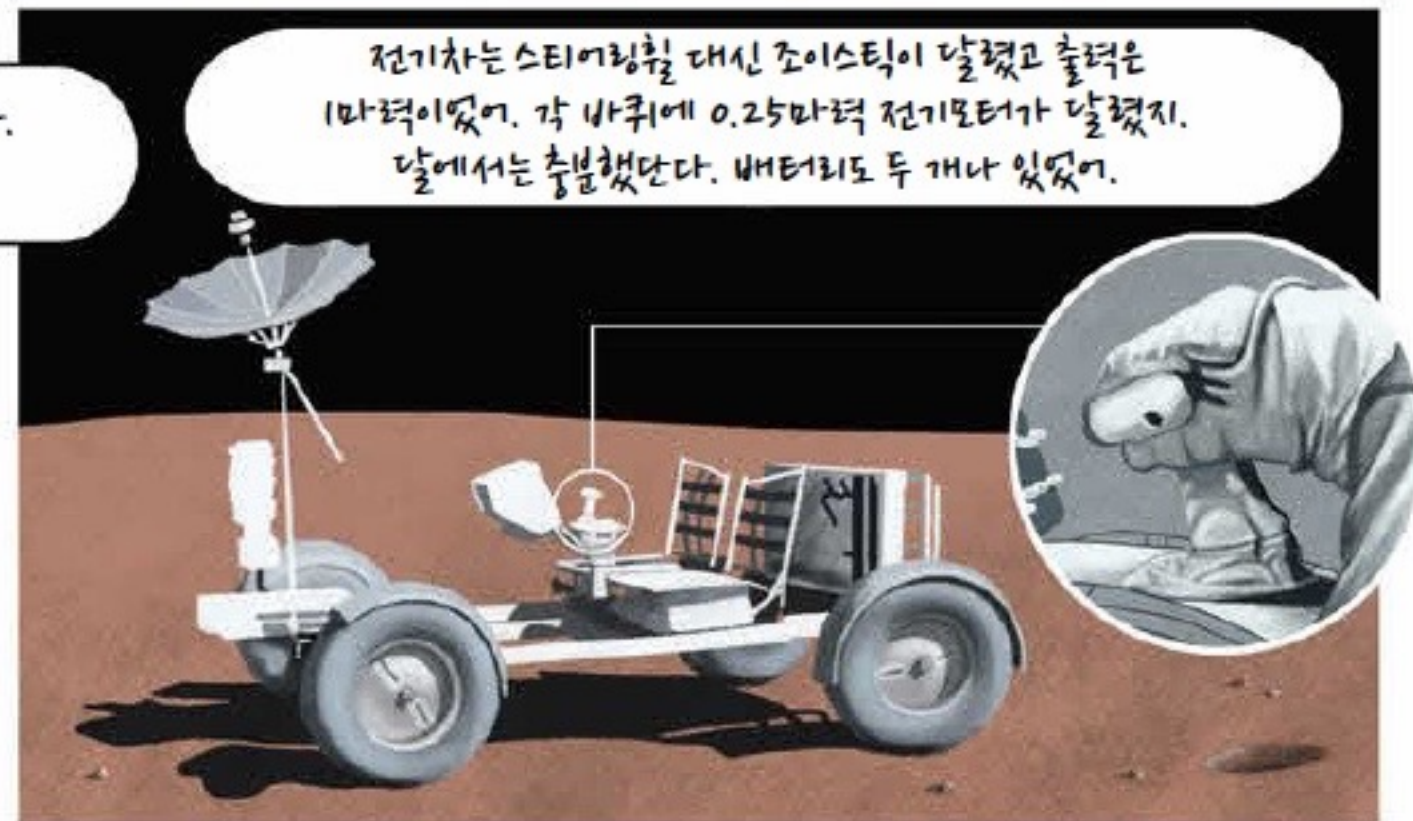
천만에.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아서 중력이 크지 않다. 달에서 달표면차 무게는 대략 40kg에 불과했지.

그렇군요!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우스꽝스럽게 뛰어다녔군요!



달표면차 조립도 우리가 직접 했어.

전기차는 스티어링 휠 대신 조이스틱이 달렸고 출력은 1마력이었어. 각 바퀴에 0.25마력 전기모터가 달렸지. 달에서는 흥분했었다. 배터리도 두 개 있었어.



달표면차는 25도 경사까지 오를 수 있었어. 스톤 마운틴을 오를 때는 뒤로 미끄러지는 줄 알았지.



내려가는 길이 더 흥미로웠어. 달표면차는 아주 튼튼했지만, 미친 듯이 이리저리 움직였지. 스포츠카 서스펜션을 쓰지 않았거든. 우리는 모두 26km를 이동했어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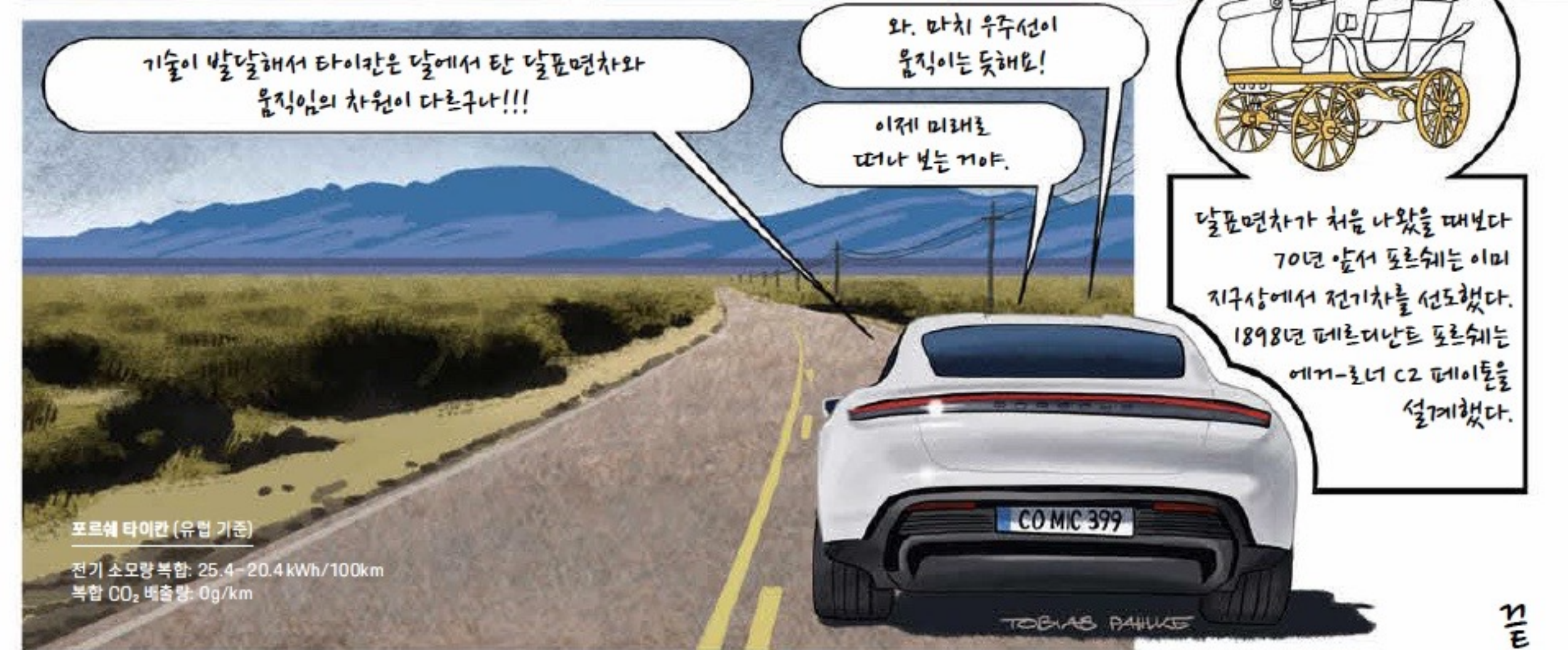
그런데도 배터리가 흥분해서 이륙 장면을 찍었었다.



저도 같이 갔다면 좋았을 텐데요!!

자, 여러분. 그럼 다 같이 타볼까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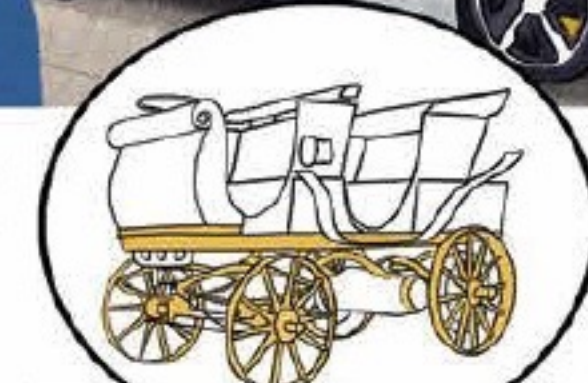
포르쉐 타이칸을 탔으면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. 배터리가 훨씬 좋잖아요!



기술이 발달해서 타이칸은 달에서 탄 달표면차와 움직임의 차원이 다르구나!!!

와. 마치 우주선이 움직이는 듯해요!

이제 미래로 떠나 보는 거야.



달표면차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70년 앞서 포르쉐는 이미 지구상에서 전기차를 선보였다. 1898년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에거-르너 C2 페이지를 설계했다.

포르쉐 타이칸 (유럽 기준)
전기 소모량 복합: 25.4-20.4 kWh/100km
복합 CO₂ 배출량: 0g/km

TOBIAS PALKE